과학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데카르트(R. Descartes)는 근대 자연과학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고 형이상학적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근대철학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자연과학이 수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것을 철학에 응용한 결과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코기토(Cogito) 명제'에 도달하였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내가 의심한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다고 하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확립하고 그것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그 결과 데카르트는 실체의 이원론을 주장하여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비롯하여 모든 생물의 운동을 다른 물체와 마찬가지로 기계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원론은 일반적인 생명현상에 대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인간의 정신현상만은 제외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사유'는 물질과 달리 '연장'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_엄정식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jsumek@hanmail.net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파블로프 · 왓슨, 심리현상을 행태주의로

정신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데카르트의 등장 이전에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었지만 정신현상을 연장의 영역으로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생리학적 지식이 급격히 확대되고 결국 '대뇌 생리학'이라는 것이 등장하자 심리현상을 완전히 신체현상으로 환원해 버리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심리학에 파격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인물이 파블로프와 왓슨이라고 할 수 있다. 파블로프가 이른바 '조건반사'를 발표해서 인간과 동물행동의 기계적 파악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면 왓슨은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자극과 반응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행태주의'를 확립하였다.

행태주의에 의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학은 결국 그 피상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후에 왓슨의 입장은 많이 개선되어 오늘날의 행태과학으로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에 못지않게 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었다. 그도 초기에는 뇌생리학에 관심을 갖고 기계론적인 접근을 시도했지만 최면요법이라는 임상영역에 종사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존재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프로이트, 정신분석은 '과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주목받게 된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무의식'이라는 심층심리를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법이 치료영역에서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있었다. 또한 심층심리에서는 삶과 죽음, 혹은 성본능으로서의 '에로스'와 파괴본능으로서의 '타나토스'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극도로 '비합리'적인 현상으로 환원됨으로써 그

의 시도는 근대 사상의 기조인 합리성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그의 정신분석이 과연 일종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정신분석은 심리학의 한 방법이며 심리학은 물리학이나 생물학 혹은 화학과 같이 분명히 과학이다. 그러므로 정신분석은 정신에 관한 지식에 근거해 있으며, 이것은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계에 근거해서 증세에 관해 설명하고 진단하며 치유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로 그것은 과학이며 프로이트 자신은 스스로 과학자임을 자처한다. 그는 신경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정신적 기제와 무의식을 '발견'함으로써 지식을 증가시켰다고 생각했다. 가령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프로이트의 가장 유명한 발견 중의 하나다.

그에 의하면 소포크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 왕'에서 따온 이 콤플렉스는 유년 시절의 무의식적인 욕구, 즉 부모 중 한 쪽을 소유하고 다른 한 쪽을 살해하려는 욕구로서 인격형성에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세심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 해석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이디푸스가 오이디푸스적 욕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것을 프로이트는 증명하지 못했다. 그는 오이디푸스가 다른 환상이 아닌 오이디푸스적 환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많은 증세를 설명하고 진단하며 치유한다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실제로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과학적 방법에 충실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프로이트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그것이 '사이비 과학' 혹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동시대인 비트겐슈타인과 포퍼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 · 포퍼, 정신분석은 '비과학적'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근거'에 의하면 프로이트가 인과적 결정론자로서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궁극적 '원인'을 규명하려 했지만 그것을 '이유'와 혼동함으로써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만일 사건 A가 사건 B의 원인이라면, 충분할 정도로 많은 경우에 규칙적으로 A에 이어 B가 일어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원인은 실험에 의해, 혹은 통계를 이용하거나 기제를 파악함으로써 확정된다. 이를테면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을 쳐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을 관찰할 때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유는 행동의 정당화를 위한 것이므로 다른 방식으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이유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권위를 지닌다. 가령 의자에서 일어난 이유를 물었을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이유를 댈 수 있다. 그러므로 왜 하필 그런 이유를 댔는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개인의 내면적 삶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유에는 끝이 있지만 원인은 무한히 이어지는 사슬을 이룬다.

비트겐슈타인은 프로이트가 원인과 이유를 혼동함으로써 정신분석을 통해 과학적 지식의 확실성이 이유에까지 도달했다고 믿었다고 지적한다. 이를 근거로 정신분석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잘못된 신념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바로 이렇게 과도한 신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포퍼에 의하면 어떤 이론이 과학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시험적인 방법을 통해 반증될 여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임상적 관찰이라는 것이 그 이론을 실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추측과 논박'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아, 초자아, 이드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야기는 하나의 서사시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에 과학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호머의 서사시에 그 과학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이론들은 어떤 사실을 묘사하고 있으나 그 방식은 신화적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심리적 통찰을 담고 있으나 실험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사실 비트겐슈타인이나 포퍼가 정신분석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하여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프로이트의 시도는 매우 중요하며 언제인가는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리라고 그들은 믿는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과학주의에 빠져서 무의식을 궁극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 이름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이 무의식에 근거한 설명 방식은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ST